

특별기고



변국일

광주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장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방역상황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이 진행되고 있다. 먼저 광주시민들의 삶이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상태로 빠르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글을 이어가고자 한다

도시 활력 회복 요구 절실

광주광역시 상임기획단장에 임한 지 16개월째이다. 이곳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타향에서 밥벌이를 하다가 30년 만에 돌아온 것이다. 학창시절 제1순환도로 외곽은 대부분 농경지이거나 임야였다. 무등산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광주는 끝과 끝을 가늠할 수 있었으며 중심부는 지금의 원도심인 금남로와 창장로 일대를 일컫는 말이었다.

강산이 세 번 바뀐 지금 제2 외곽순환도로를 지나며 바라본 풍경은 그야말로 경천동지 자체다. 빼곡히 들어차 있는 아파트와 기억에도 없는 지명들이 생소하다. 새로운 중심지로 상무대가 빠져나간 자리에 들어선 상무지구를 논하기도 한다. 도시가 많이 발전한 것이다.

도시의 발전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안고 있다. 상하수도, 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의 공급과 일자리 창출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일조

하지만 개발의 지역적 편중에 따른 불균형과 외곽 확산에 따른 사회비용의 증가, 환경훼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

수도권 유수의 도시들에서도 노정된 현상처럼 도시의 양적성장에 대한 열망은 토지비용이 저렴한 외곽지역에 아파트 위주의 개발을 부추겼고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도시재생으로 극복하고자 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다. 도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도시는 ‘회복탄력성’을 가져야 한다.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생태학 분야에서 처음 제시됐으며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능력’을 의미한다. 생태시스템 즉 생태계는 안정성(Stability)과 회복탄력성(Resilience)의 상호관계 속에서 유지된다(Holling, 1973). 안정성이 높은 시스템은 상태변화가 크지 않으므로 회복탄력성이 낮은 반면 안정성이 낮은 경우 시스템 유지를 위한 회복탄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최근 범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스트레스가 매우 높았다. 그에 더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회재난 등으로 광주시민들의 스트레스는 더욱 가중된 것이 사실이다. 우리시의 도시 안정성이 위태로운 지경으로 회복탄력성이 필요한 중요한 이유이다.

심리학에서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시련을 극복하는데 개인의 회복탄력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도시를 유기체로 보는 도시생태학적 관점에서 광주시민은 공통적인 회복탄력성을 공유하고 있다. 바로 “그랑개”라는 매우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다. 고유의 회복탄력성을 바탕으로 도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우선 세 가지 측면에서 회복탄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재난재해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확보하

여야 한다. 재난재해가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다수 존재한다고는 하지만 위기상황별 대응매뉴얼 마련 및 사전예방을 위한 노력 등을 통해 안전도시로 거듭나야 한다.

둘째, 도시경관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키워야 한다. 고층의 아파트 위주 건축물 경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도시공간의 선택적 융복합 토지이용과 무등산·영산강 등 천혜의 자연자원과의 조화를 통해 휴먼스케일의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해야 한다.

재해·경관·산업 초점

셋째, 산업생태계의 회복탄력성을 키워야 한다. 4차산업혁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조업의 구조고도화 등 산업혁신과 함께 AI·모빌리티·에너지 등 디지털 대전환 시대 미래성장동력 확충으로 일자리 창출과 시민의 삶의 풍요롭고 안정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상임기획단장 임용을 위한 면접에서 “왜 광주광역시에 응시했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광주시의 발전과 도시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금까지 공부하고 경험하였던 업무역량을 지역에 헌신하고자 응시하였다”고 답하였다. 지역으로 돌아와 있고 지냈던 친구와 술잔을 나누고 가족·친지들과 교류하면서 원론적 답변은 삶의 터전인 이곳을 조금은 더 나은 도시로 바꿀 수 있도록 일조해야 하는 의무감으로 변하고 있다.

광주시 상임기획단장으로서 거창한 목표와 비전을 토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16개월을 치열하게 임하며 가졌던 도시계획적 소회를 피력하고 더 강한 응수형의 탄력(회복탄력성)을 가지고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로 더 높이 뛰어 오를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고자 다짐하는 것이다.

신기술·신품종이 농업과 농촌을 살린다

천사에서 추진 중인 농업의 신기술·신품종 실증 보급 프로젝트는 시의적절하고 모범적인 정책 방향이라 평가받고 있어 소개한다.

순천시는 지난 3월 경쟁력 있는 신소득 작목 도입과 스마트팜 현장 보급 확대를 위해 20여년간 운영하던 산지원에체험장을 실증시험 중심의 원예과학원으로 과감하게 개편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그동안은 몇 가지 과수에 대해 단순한 수확 체험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던 곳이 다품종의 과수와 아열대 과수·채소까지 확장한 품종에 대한 신기술을 실증하고 현장 교육을 강화하는 시범포 및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선암매 등 매실 유전자원 단지, 꽃가루 은행 운영 등 신기술·신품종 보급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다.

많은 농업연구기관에서 개발된 농업 신기술과 신품종이 몇몇 시범사업을 통해 일선 현장에 보급되고 있다. 이렇게 단순한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에 보급된 새로운 기술은 품종별, 작목별로 지역 환경 적응성이 다르고 소비자 선호도와 시장성 검증이 미흡하다.

특히, 다년생 과수의 경우 농업 현장에서 다년간 작목을 관리해야 소득이 발생함에 따라 일선 농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도입에 제약이 따르므로 신속한 현장 확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순천시에서는 농가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의 신기술과 신품종을 현장에 보급하기 전에 실증하는 시범포와 농업기술에 대한 현장 체험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원예과학원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신기술·신품종의 지역 적응성과 경제성 등을 검증함으로써 농가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고 현장 실습형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

침이다.

스마트팜이란 정보통신 기술을 농업에 접목해 농작물의 생육환경을 자동으로 조절하고 원격제어하는 농업 시스템을 의미한다. 실증 시범포와 함께 원예과학원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팜 테스트베드는 농작물의 생육에 적합한 기상 및 토양 양분 데이터를 수치화하는 작업 수행과 최첨단 스마트팜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팜 시험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자동으로 통제하는 스마트팜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하고 이미 농가에 보급돼 가동 중인 스마트팜의 데이터까지 수집해 작목별·지역별 데이터를 표준화함으로써 앞으로 농가에 대한 컨설팅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순천시 원예과학원이 2005년부터 국가매실 유전자원 보존기관으로 지정받아 현재 매실 173품종을 보존·관리하고 있으며, 여기에 보존된 유전자원을 이용한 육종을 통해 매실 신품종 천매를 개발해 2008년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 등록을 마치고 농가에 보급해 각광을 받은 바 있으나 최근경쟁력이 낮아진 매실 산업 부흥을 위해 600년 이상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천연 기념물 선암매의 후계품종 개발을 시작했다. 관상 목적의 꽃(매화종)과 소비자 선호도에 맞춘 기능성 과실(매실종)로 분류해 개량품종 육성에 한창이다.

순천시는 많은 농가들이 고품질 과수 생산에 필요한 꽃가루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발아율이 낮고 검역단계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례가 많아 품질이 저하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농촌진흥청의 자문을 받아 원예과학원에 꽃가루 은행을 설치하고 있다. 앞으로 고품질·다품종의 꽃가루를 과수 농가에 보급하게 되면 꽃가루 자립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설

민선 8기 지역 현안 ‘속도전’ 기대

1일 취임하는 강기정 광주시장은 얼마 전 언론매체에 첫 수소 트램 설치 구간을 언급했다. 강 시장은 “광주역~송정역, 농성광장~터미널~야구장(KIA 챔피언스필드) 구간에 수소 트램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우선 1단계로 시의 결단으로 가능한 농성동에서 야구장까지 구간을, 중앙 부처 동의가 필요한 광주역~송정역은 2단계로 추진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창원, 포항, 울산 등은 국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광주는 많이 늦었다”고 부연했다.

같은 시기에 광주시는 무등산에 수소 트램을 설치하자는 안을 밝혔다. 혁신추진위원회는 원효사~장봉재 군용 도로를 활용해 트램을 설치하고자 제안했다. 무등산 정상 접근로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였다. 무등산 접근로와 관광객 편의를 위해 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케이블카 대신 수소 트램으로 의견을 모은 것인데, 민선 8기에서 반영될지 미지수다.

강 시장은 흥준표 대구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무안과 대구 공항을 관문 공항으로 육성해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자는 데 의견

을 같이했다. 국가균형발전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대구·경북은 통합신공항을 건설키로 이미 확정했고, 광주와 전남은 군 공항과 민간공항 이전을 둘러싼 갈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안공항을 관문 공항으로 조성하기 위한 전 단계가 정리되지 않은 것이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은 이미 알려진 대로 초광역 메가시티를 구성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으며 대구·경북은 행정통합을 목표로 서로 간 접점을 찾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광주와 전남은 아직 통합을 위한 움직임을 진행 중에 있고 이렇다 할 변화 움직임은 없다. 최근 강 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비공개로 회동, 상생 방안을 논의해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교통복지를 이루는 광주 지하철 3단계 구간 공사가 예산 부족으로 불투명해지고 있으며, 어등산 관광단지·전방과 일신방직 부지 개발 등과 관련한 이해 주민 간 진통이 예상된다. 민선 8기에서 지역 발전 해법을 빠르게 찾아야 한다.

전남도, 조선업 인력지원 타이밍 맞춰야

최근 선박 수주 호황에도 불구하고 인력난으로 힘들어하는 조선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전남도가 인력수급 지원 사업을 추가로 편성하는 등 조선업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기존에 추진중인 사업 외에 산업현장에서 추가 요청한 4개 사업과 기존보다 규모를 늘린 2개 사업 등 총 6개 사업을 제1회 추경에 신속히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도가 신규로 내세운 사업은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금과 고용유지지원금, 공동근로복지금,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 지원사업이다. 신규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사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도내 조선기업에 취업한 200명에게 1인당 월 25만 원씩 1년간 총 300만 원을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직원을 유급·휴직 등 형태로 고용을 유지한 경우, 1인당 월 21만 원씩 5개월간 200명에게 지원한다.

공동근로복지지금은 원청과 사내협력사 간 조성된 금에 지자체가 출연한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학자금 및 생활안정자

금 지원 등 복지 혜택을 늘리는 데 쓰인다. 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 지원사업은 조선업 불황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할 경우 월 25만 원씩 1년간 총 300만 원을 100명에게 지원한다. 신중년, 여성층 등의 재취업 유입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는 게 전남도의 판단이다.

기존의 인력양성사업도 규모를 확대한다. 기능인력 훈련수당은 110명을 추가해 285명으로 늘렸다. 교육을 마친 취업자에게 월 60만 원씩 2개월간 지원하는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사업 채용지원금은 340명을 추가해 총 680명에게 혜택을 준다. 이밖에 전남도는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조선인력 수급대책 지역협력 협의회를 구성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대정부 공동건의 활동을 이어간다.

전남도는 서남권 주력산업인 조선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도화를 위해 핵심 현안인 인력 적기 공급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도는 여기에 더욱 다양하고도 근본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조선업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해남 해수 침수 반복, 신뢰 잃었다

기지수첩



이주연

제2사회부 기자

6월 초 해남군 화산면 54ha가량의 농경지 일대가 바닷물에 잠겼다.

가뭄 속 힘겹게 모내기를 마친 시점에 농민들은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해수 침수 피해를 입어 모가 말라 죽고 하천의 민물고기기가 폐사하는 등 농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사고 원인은 허술한 수문 관리. 해남군 화산면 관동방조제 수문 6개 가운데 3개가 닫히지 않아 바닷물이 유입된 것이다.

해남군에는 수문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2차 안전 관리시스템(CCTV)도 있었다.

하지만 휴일이어서 근무자가 없었다는 어이 없는 변명만 돌아왔다.

더욱이 올해 초 3차 안전 관리시스템으로 설

치한 자동 염도 측정시스템도 정상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해남군의 해수 침수 피해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번 사태로 해수 침수를 막기 위한 2중 3중의 시스템은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해남군은 피해 발생 후 염도가 비교적 낮은 지역은 인근 저수지의 물을 방류해 염도를 계속 해서 낮추고 이양된 모를 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모가 말라 죽는 곳은 다시 모내기를 할 수 있도록 육묘 지원 등의 피해 복구에 나서고 있지만, 농민들의 한숨은 깊어져 만 갈 뿐이다.

‘예견된 인재’, ‘소금 먹은 심장’, ‘형식적 관리’ 등 본분을 감추지 못하며 해남군의 재발 방지 약속에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농지의 염분을 완벽히 제거해야 모를 살리거나 모내기를 할 수 있지만, 현재 가뭄으로 물이 없어 이마저도 기대하기 어렵다. 최악의 경우 올 벼농사는 물론 내년 농사까지도 피해를 본다면 농민들은 힘없이 무너질 것이다.

해남군은 철저한 피해조사와 보상 대책 마련에 총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반복된 사고가 또 다시 일어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피해 농가 등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의견 수렴으로 잃어버린 신뢰도를 찾고 위기를 개선하길 바란다. 명현관 해남군수의 현명하고 추진력 있는 행정을 기대한다.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朴哲弘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金善男		편집국장 姜聲秀	
jndn.com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010-4601-5323	
정치부	(062) 720-1060	문화체육부	(062) 720-1071	월간국	(062) 720-1007
경제부	(062) 720-1067	사진부	(062) 720-1040	사업국	(062) 720-1011,1099
사회부	(062) 720-1050	기획팀사부	(062) 720-1045~46	광고국	(062) 720-1016~17
사회2부	(062) 720-1043	편집부	(062) 720-1073	관리국	(062) 720-1012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기사제보 jndn@chol.com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98 (사동)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정직한 신문 공정한 신문



유튜브·네이버 포스트에서도 만나요~!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